[UCI]I804:24011-200000237532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

- 2005~2007년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미 경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 김 미 경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

- 2005~2007년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references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00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미 경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

-2005~2007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기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미 경

김미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광주보건대학 교 수 조 민 정 인

위 원 광주보건대학 교 수 김 승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 동 기 인

2008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iv
1.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
1.3. 조사목적 ····· 7
2. 조사대상 및 방법 ····· 8
2.1. 조사대상 ····· 8
2.2. 조사방법 ····· 8
2.3 통계분석 ····· 13
3. 조사성적 ····· 15
3.1. 논문의 일반적 특성 ····· 15
3.1.1. 게재논문의 분야별 논문수 조사 ····· 15
3.1.2. 게재논문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 ····· 16
3.1.3. 게재논문의 공저자 소속 연구기관 조사 ····· 17
3.2. 참고문헌 인용실태 분석 ····· 19
3.2.1. 게재논문의 국내 국외 참고문헌 수 조사 ····· 19
3.2.2.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율 ····· 20
3.2.3.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 조사 ····· 21
3.2.4.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조사 ····· 21
3.2.5.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최다인용년도 조사 ····· 24
3.2.6.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즉시인용율 ····· 25
3.3.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형식의 오류 ····· 26
3.3.1.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논문 수 ····· 26
3.3.2.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 ····· 26
3.3.3.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 27
4. 총괄 및 고안 ····· 28
5. 결론 ····· 34
참고문헌 ····· 35

표 목 차

표 1. 연도별 조사대상 분류 ····· 8
표 2.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으로 인용된 분석지표 ····· 11
표 3. 분석내용 분류 ····· 12
표 4. 연도별 게재논문의 분야 분류 ····· 16
표 5. 연도별 게재논문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 ····· 17
표 6. 연도별 게재논문의 공저자 논문 수 조사 ····· 17
표 7. 연도별 게재논문의 공저자 소속연구기관의 수 조사 ····· 18
표 8. 게재논문의 공동협력연구유형 분석 ····· 19
표 9. 게재논문의 연도별 국내 국외 참고문헌 수 조사 ····· 20
표 10. 자체 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율 ····· 21
표 11. 연도별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 조사 ····· 21
표 12.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조사 ····· 23
표 13.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반감기 조사 ····· 24
표 14.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최다인용년도 조사 ····· 25
표 15. 연도별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즉시인용율 ····· 25
표 16.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논문 수 ····· 26
표 17.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 ····· 27
표 18.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 27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14
그림 2. 연도별 게재논문의 수 ····· 15
그림 3.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인용률 ····· 20

ABSTRACT

Analysis of references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2005-2007)

Kim, Mi-Kyong, B.S.
Advisor: Prof. Kim, Dong-Kie, D.D.S.,M.S.D.,Ph.D.
Department of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ferences of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JKADH) to increase the accuracy of self-citation to editing and judgement.

Materials and methods :
It carried out that JKADH has analyzed to self-citation rate and error of references with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per. Self-citation of JKADH is 579 references among the published paper 148 of 3800 references from 2005 to 2007.

Results :

1. Mean cases of self-citation per each paper is 3.91 and rate of self citation is 15.21% of all paper.
2. Immediate citation rate is 13.51%, the maximum in mumber of citation period is appeared within 1-5 years and a half-period is 4-5 years after the paper is published.
3. The rate of self citation error is 56.69% and rate of reference citation error is 56.69%. Error in Page is 103 cases(66.02%), error in title is 20 cases(12.82%), error in volume is 18 cases(11.54%) orderly.

Conclusions :
Authors must be know to rules description of their references. and it should be reinforced the system of editing and judgement to increase quality of journal.

Key words : analysis, citation error. journal, reference, self-citation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술지는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다. 학문의 교류수단으로서, 그리고 지식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술지는 학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한 나라의 학문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1]. 또한 동료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경로가 학술지이다[2]. 이렇듯 학문의 발전은 과거의 학문적 업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연구자들은 과거의 지식을 이용하고 소화하여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학문적 업적을 찾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자,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의 진화적 특성 때문에 많은 학술연구 활동은 선행연구와 관련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술하는 것이 정형적인 학술 논문 집필의 모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3]. 그 중 논문은 과학기술의 연구 활동 및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연구논문 발표는 실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공개함으로서 인정받음은 물론 연구정보의 전달 및 확산도 가능하고 신진연구 인력의 연구에 중요한 지식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4].

과학자들의 연구과정을 보면 끊임없는 평가과정의 연속인 바, 이러한 평가방법으로는 학위논문 심사, 학술지 논문심사, 인용 분석에 의한 평가, 평가논문에 의한 평가, 역사에 의한 평가 등이 있다. 이 중 인용 분석에 의한 평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활발히 사용되는 연구업적 평가 방법으로 생산성, 영향력, 이전속도, 논문의 특성, 연구자의 특성, 인용의 특성에 대한 지표가 산출식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5].

결과적으로 논문에는 저자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해당분야의 다른 연구들과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며,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참고문헌이 있고 이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확히 표기하여 독자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각 학술지마다 참고문헌목록 작성에 관한 투고규정을 정하고 있다[6]. 따라서 인용은 해당 선행연구가 논문의 작성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대한구강보건학회는 1961년 창립 후 현재까지 47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고,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됨으로써, 국내에서 발행되는 치과계 학술지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회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었기에 분석을 통해 게재 논문의 참고문헌 실태와 인용형식의 정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활용된 참고문헌의 인용실태와 인용형식(출처표기) 정확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가종 등(1996)은 학술지 인용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학문, 과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구업적평가를 위한 각 분야별 학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6개학회의 11종 학술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용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차원이 아니며 우리나라 학문의 현주소와 동향, 미래 설계에 귀중한 자료이기에 연구자의 연구경향을 점검하는데 학술지는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김갑선(2002)은 참고문헌을 해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에서 발생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인용동기와 연구자들의 지식 생산의 논의과정에

서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식생산의 메카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인 탐구가 시도 되었다. 사회과학분야학술지 24종의 43부를 선정하여 321명의 저자들에게 연구채널과 인용동기를 조사하였고, 이들 참고문헌의 11,358개를 분석한 결과로 국외문헌이 국내문헌보다 1.9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아이디어 획득의 정보원이자 연구자의 정체성지표로서 작용된 연구채널은 상당히 국외채널 지향적이었고, 인용동기는 연구자 및 논문요인의 9개변인 중 국외교육경험, 출판경력, 주제분야, 연구채널, 연구관심유형, 논문유형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국외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에서 한국지식공동체의 당의적인 과제로서 서구 이론틀에 독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한국적 이론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했다.

조성호(2003)는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에서 참고문헌과 관련해 국내 참고문헌보다 9년 정도 더 지난 외국 참고문헌을 두 배 이상 더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좀 더 최신의 국내외 문헌들을 인용하여 연구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남영준 등(2005)은 연구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자료와 참고문헌목록에 수록되는 자료는 일치되어야 하며, 독자들이 원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각 자료의 구성요소들 즉 서지사항은 정확하게 기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George 등(1994)은 논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해당분야의 다른 연구들과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며,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참고문헌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 관련 연구자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각 학술지마다 참고문헌목록 작성에 관한 투고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의 정확성은 독자가 인용된 논문을 찾아보려고 할 때, 빨리 찾게 되거나 늦게 찾는 정도가 아니라 못 찾아 볼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하며 더 나

아가서 원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문헌이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변재준(1996)은 가정의학회지의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와 내용인용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1993년 11월부터 1년간 발간되어 원저에 인용된 참고문헌 100편을 무작위 추출하여 출처표기오류는 대오류, 중요류, 소오류로 분류하고, 내용인용오류는 완전오류, 부분오류, 기타오류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출처표기오류에서 71.4%, 내용인용에서 41.5%의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높이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모든 저자는 학자적 양심과 성실성에 입각하여 논지의 전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헌만을 꼭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당잡지의 규정에 맞게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참고문헌 수가 많은 논문이 반드시 좋은 논문은 아니므로 의학검색도구를 통하여 초록만을 보거나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만을 본 후 직접 읽지 않은 논문을 읽은 것처럼 인용하여서는 안되며, 재인용의 경우는 이를 표시해서 저자는 모든 참고문헌에 대해 그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잡지의 투고규정을 잘 지키고 편집과정에서 사독을 더 철저히 한다면 참고문헌의 오류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김용철 등(1999)은 대한마취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시 인용빈도 및 인용의 정확성에서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한마취과 학회지(대마지)를 인용한 빈도와 논문의 오류사항,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분석하여 학회지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6년 1월호부터 1998년 12월호까지 990편의 논문과 대마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1,710개를 원본과 대조하여 오류를 판정하고, 현행투고규정을 기준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인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양적 증가를 보였고, 이중 대마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은 74%였으며, 해가 갈수록 대마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오류빈도는 대마지를 인용한 논문 중 30%에서 1가지 이상 오류를 보였고, 2가지 이상 보인 경우는 14%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 오류빈도는 높아질 것이며,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투고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저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학술지의 질적 양적인 향상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고 학술지를 재검토하여 투고규정을 알기 쉽게 기술해야 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모형진 등(1999)은 산부인과 학술회지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평가하여 보고, 출처표기 및 내용인용의 오류율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1997년 1년간 발간된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 중 4종의 잡지에 실린 논문을 각 15편씩 총 60편을 단순무작위 추출하여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 1,264개를 조사하였다. 서지사항을 확인한 문헌에 대하여 출처표기상의 오류 항목(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간년도, 권수와 쪽수 등)을 평가하고, 각 항목에서 1회 이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1회의 오류로 보고 오류가 있는 참고문헌의 수를 분율로 표시하여 4개의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별로 오류율을 구하고, 각각에서의 오류의 정도에 차이는 분산분석을, 국외문헌과 국내문헌사이에 오류의 정도에 차이는 t-검정을 이용, 참고문헌의 수에 따른 오류의 정도에 차이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 주요 학술회지에서 조사된 참고문헌의 오류는 594개(56.0%)로 이중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지가 152개(52.6%)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국외문헌 58.3%, 국내문헌에서 35.0%로 국외문헌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출처표기의 오류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쪽수, 권수, 발간년도 순이며, 내용인용에 관한 오류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의학에 종사하는

저자, 편집자, 발행인 및 논문심사자가 학술잡지의 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논문의 참고문헌에 대한 상호심의가 이루어질 때 그 정확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Siebes(2000)는 알러지 저널의 참고문헌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1999년 4월에 발행된 3개의 전문 알러지 저널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은 Medline을 통해 원본과 대조하였으며, 정확도 검사를 위해 저자, 제목, 저널명, 년도, 권호, 페이지 등의 6개항목이 조사된 결과 17.7~28.2%의 오류가 저자, 제목, 페이지, 저널명, 권호, 연도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인용문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독자나 사서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저자들에게 인용한 참고문헌의 첫 페이지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저자들이 인용한 문헌을 Medline과 비교하는 작업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조길호 등(2002)은 국내소아과 관련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소아과학회지와 9개 분과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확도 조사를 하고, 자주 인용되는 참고자료의 인용행태를 알아볼 목적으로 인용년도, 인용된 자료의 출판형태와 어떤 잡지가 소아과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정확도 조사를 위해 Medline을 통해 저자나 연도, 학회지이름, 논문제목 등을 검색하여 한 가지 이상 틀리면서 다른 항목에서도 틀린 것을 한 개의 오류로 보고 오류확률을 구한 결과 각 학회지별 항목별 오류율은 저자가 21.3%로 가장 높았고, 논문제목, 페이지, 학회지이름, 권호, 발행년도 순이었다. 전체오류율은 34.7%였으며 전체 찾을 수 없는 경우는 89개로 2.2%였다. 다음으로 인용행태 분석은 첫째, 참고자료 중 5년 단위로 분류하여 인용퍼센트를 구한 결과 5~9년 된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발행된 논문의 인용은 612개(15%)로 최근 자료의 인용빈도가 낮았다. 둘째, 참고문헌 중 외국논문 78.4%, 국내

논문 7.7%, 단행본 6.2%순으로 국외자료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참고문헌의 정확도는 궁극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며, 저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고문헌의 정확도를 점검해야 할 것과 연구자들은 더 많은 최신자료와 국내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조사 목적

본 논문은 연구자들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 즉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강보건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한구강보건학회지가 갖는 효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회원들의 학회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학회지의 인용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참고문헌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둘째, 참고문헌의 인용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학회지의 활용과 인용빈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대한구강보건학회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4권씩 정기 발행되어 총 12권에 게재된 논문 148편과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 3800개 중에서 자체학술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총 57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2007년도 4호지에 게재된 오류정정논문 1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1.* 연도별 조사대상 분류 단위 : 수, %

년도	게재 논문의 수		참고문헌의 수		
	전체	%	전체	JKADH*	%
2005	45	30.41	1173	182	31.31
2006	48	32.43	1224	200	34.60
2007	55	37.16	1403	197	34.09
계	148	100.00	3,800	579	100.00

JKADH*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논문을 인용한 참고문헌의 수

2.2. 조사방법

선행연구문헌 및 예비논문을 기초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논문의 일반적 특성, 참고문헌의 인용실태,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등 세 분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2, 표 3).

2.2.1. 게재논문의 일반적 특성 조사

논문의 기초사항인 논문제목, 저자 및 저자소속기관, 색인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먼저 학회지의 논문을 2007년 학회지의 게재분야별로 분류된 기준에 따라 공중구강보건학·예방치과학·치위생학의 세 분야로 나누었다. 공중구강보건학·예방치과학분야는 각각 치아우식증관련, 치주질환관련, 구강

보건교육관련, 세 분야 외에 나머지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여 게재 분야별 논문수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저자 및 저자소속기관을 통해 연구수행 행태를 조사하였다. 한명의 저자가 저술한 자료는 단독저자,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저자로 분류하였다. 저자소속기관의 수와 이를 토대로 공동협력연구유형 형태를 조사하였다. 이때 논문의 저자들이 같은 대학이나 같은 연구소인 경우에는 부서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연구기관으로 보았고, 대학-대학간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연구기관으로 간주되었다[4].

2.2.2. 참고문헌의 인용실태 분석

게재논문의 전체 참고문헌을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치를 세어서 기록하고 이를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각 논문에서 파악된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은 대한구강보건학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참고문헌은 한국학술교육정보원(www.riss4u.net)에서 검색하여 진위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참고문헌의 분석에서 국내문헌은 출판된 언어나 출판지와는 상관없이 한국기관에 소속된 "한국인"저자에 의해 출판된 문헌으로 규정하였다[7]. 따라서 국내문헌으로 분류된 나머지는 국외문헌으로 간주하였다. 이 중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을 인용한 참고문헌 즉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경우를 세어서 기록하였다[8].

자체학술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을 발행년도별로 조사하여 자체학술지 인용율을 조사하였다[5,8]. 참고문헌의 경과년도는 인용논문의 발행년도에서 논문의 발행년도를 뺀 숫자이며, 예를들면 2000년에 발행된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논문이 2005년도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2005-2000=5로 계산되었다[9,10]. 또한 최다인용년도는 게재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를 조사하였으며, 반감기는 게재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의 누적도수가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였다. 논문이 발표된 당해년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경우를 조사하여 즉시인용율을 구하였다. 즉시

인용율은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이 당해년의 다른 논문에 인용된 총 인용 횟수의 합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당해년에 발표된 총 논문 수로 나눈 값이다[5,15].

2.2.3.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 분석

게재논문의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시작 쪽-끝 쪽)순으로 분류하여 틀린 곳을 조사하였다. 이때 문장부호(, . ; :) 등의 오류는 세지 않았다. 논문에서 오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중복하여 기록하였고, 한 논문에서 여러 개의 오류가 검색되더라도 1개로 보고 오류율을 구하였다[8,11-13].

표 *2.*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으로 인용된 분석지표

구분	지표	용어해설	산출식(*1*년 단위로 계산)
생산성	학술지생산성	한 학술지의 논문 수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의 합(누계)
영향력	학술지영향력	한 학술지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미치는 중요성	한 학술지의 논문이 다른 논문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수의 합 /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수의 합
논 문 의 특성	논문1편당 연구자 수 (공동연구)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의 한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의 수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 수의 합 /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의 합
	논문1편당 인용 수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의 한 논문의 참고문헌의 수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수의 합 /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의 합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기관별 분포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백분율
이전속도	즉시인용률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학술지 발행년도와 같은 연도에 참고문헌으로 나타난 비율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발행년도에 다른 논문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수의 합 / 한 학술지의 발행년도에 발표된 논문 수의 합
	인용절정기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 백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해에 이르는 기간
	반감기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의 누적도수가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 백분율을 계산하여 누적도수가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논문의 특성	학술지 자기인용률	한 학술지가 자기(self)학술지를 인용한 비율	한 학술지가 인용한 자기(self)학술지 수의 합 / 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다른 논문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수의 합

윤석경[5)]의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인용분석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자료참조

표 3. 분석내용 분류

분 류	내 용	인용문헌
논문의 일반적 특성	게재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분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	4)민 등-Table 3
	공저자 논문 수 조사	4)민 등-Table 8
	공저자소속 연구기관 수 조사	5)윤-표 6 4)민 등-Table 4
	공동협력연구유형 분석	4)민 등-Table 5
참고문헌의 인용실태 분석	게재논문의 연도별 국내 국외 참고문헌 수 조사	14)이 등-인용도 조사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율	5)윤-논문의특성(학술지자기인용률)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빈도 조사	8)김 등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조사	9)박-Table 5 10)성 등-표 3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반감기 조사	5)윤-표 4(반감기)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최다인용년도 조사	5)윤-표 4(인용절정기) 11)조등-그림 1(인용년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즉시인용율	5)윤-표 4(즉시인용률) 15)최-P283
자체학술지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 분석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 논문 수	8)김 등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	8)김 등 11)조등-표 1(오류율)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8)김 등 13)George 등-그림 1 16)Siebers-표 1

2.3. 통계분석

본 조사의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였다.

(1) 논문의 일반적 특성으로 게재분야별 논문 수, 저자 수, 색인 수, 공저자소속 수행연구기관 수, 공저자 논문 수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참고문헌 인용실태로 국내·국외참고문헌 수, 경과년도 분석, 자체학술지 인용율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
2005~2007년을 중심으로

↓

학회지의 현황파악
학회지에 대한 활용과 인용빈도를 높임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2005~2007년까지 조사
· 게재논문 148편,
· 참고문헌 3800개 중 대한구강보건학회지를 인용한 참고문헌 579개

↓ ↓ ↓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참고문헌 인용실태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
·게재분야분류 ·저자수, 색인수 ·공저자현황 ·소속연구기관 수 ·공동협력연구유형	·국내· 외 참고문헌 수 ·자체학술지 인용빈도 ·최다인용년도 ·즉시인용율 ·반감기	·인용형식의 오류율 ·인용형식의오류 논문수 ·인용형식의오류사항

↘ ↓ ↙

빈도분석

↓

결론 (인용빈도, 즉시인용율, 반감기, 인용형식의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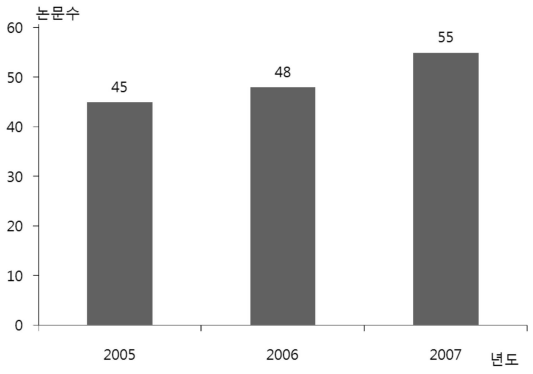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Ⅲ. 조사성적

3.1.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3.1.1. 게재논문의 분야별 논문 수 조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게재된 논문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총 148편의 논문 중 공중구강보건학 64편(43.24%), 예방치과학 63편(42.57%), 치위생학 21편(14.19%)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치과학 분야의 치아우식증관련 연구가 36편(24.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중구강보건학 분야의 치아우식증관련 연구가 33편(22.30%)이었다. 2005년도는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서 치아우식증관련연구가 2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위생학분야 치위생학관련연구가 20.00%, 예방치과학분야 치아우식증관련연구가 17.78%였다. 2006년도는 예방치과학분야 치아우식증관련연구가 3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서 치아우식증관련연구가 27.08%였다. 2007년도는 예방치과학분야 치아우식증관련연구가 21.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서 치아우식증관련연구와 치위생학분야 치위생학관련연구가 각각 16.36%였다(표 4).



(그림 2) 연도별 게재논문의 수

표 *4.* 연도별 게재논문의 분야 분류

단위 : N, %

게재분야	연구분야	계	논문 수		
			2005년	2006년	2007년
전 체		*1648 (100.0)*	*45 (100.0)*	*48 (100.0)*	*55 (100.0)*
공중구강보건학	치아우식증관련	33 (22.30)	11 (24.44)	13 (27.08)	9 (16.36)
	치주질환관련	2 (1.35)	0 (0.00)	1 (2.08)	1 (1.82)
	구강보건교육관련	3 (2.03)	1 (2.22)	0 (0.00)	2 (3.64)
	기타	26 (17.57)	5 (11.11)	8 (16.67)	13 (23.64)
	소계	*64 (43.24)*	*17 (37.78)*	*22 (45.83)*	*25 (45.45)*
예방치과학	치아우식증관련	36 (24.32)	8 (17.78)	16 (33.33)	12 (21.81)
	치주질환관련	10 (6.76)	5 (11.11)	1 (2.08)	4 (7.27)
	구강보건교육관련	0 (0.00)	0 (0.00)	0 (0.00)	0 (0.00)
	기타	17 (11.49)	6 (13.33)	6 (12.50)	5 (9.09)
	소계	*63 (42.57)*	*19 (42.22)*	*23 (47.92)*	*21 (38.18)*
치위생학	치위생학관련	21 (14.19)	9 (20.00)	3 (6.25)	9 (16.36)
	소계	*21 (14.19)*	*9 (20.00)*	*3 (6.25)*	*9 (16.36)*

3.1.2. 게재논문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

조사대상 논문 중 총 저자 수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4인까지 668명으로, 논문 한 편당 평균 4.51명이다. 논문 한 편당 평균 저자 수는 2005년 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4.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색인 수는 전체 627개로 논문 한 편당 평균 4.24개이다. 논문 한 편당 평균 색인 수는 2005년 4.33개로 가장 많았고, 2006년 4.10개로 가장 적었다(표 5).

표 *5.* 연도별 게재논문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

단위 : N

연도	논문 수	저자 수		색인 수	
		전체	평균*	전체	평균*
2005	45	218	4.84	195	4.33
2006	48	222	4.63	197	4.10
2007	55	228	4.15	235	4.27
합계	148	668	4.51	627	4.24

*평균=전체/논문수

3.1.3. 게재논문의 공저자 소속 연구기관 조사

(1) 게재 논문의 연도별 공저자 논문 수 조사

전체적으로 5인공저 논문이 35편(23.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인공저 논문이 32편(21.62%), 3인공저 논문이 26편(17.57%)순이었다. 연도별 조사에서는 2005년도는 5인공저 14편(31.11%), 6인공저 12편(26.67%)순이며, 2006년도는 5인공저 12편(25.00%), 6인공저 10편(20.83%)순이며, 2007년도는 3인공저가 12편(21.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과 6인공저가 10편(18.18%)순이었다(표 6).

표 *6.* 연도별 게재 논문의 공저자 논문 수 조사

단위 : N, %

공저자 현황	계	연도별 논문의 수		
		2005	2006	2007
단독	6 (4.05)	1 (2.22)	3 (6.25)	2 (3.64)
2인공저	17 (11.49)	4 (8.89)	3 (6.25)	10 (18.18)
3인공저	26 (17.57)	5 (11.11)	9 (18.75)	12 (21.82)
4인공저	18 (12.16)	5 (11.11)	6 (12.50)	7 (12.73)
5인공저	35 (23.64)	14 (31.11)	12 (25.00)	9 (16.36)
6인공저	32 (21.62)	12 (26.67)	10 (20.83)	10 (18.18)
7인공저	9 (6.08)	2 (4.44)	4 (8.33)	3 (5.45)
8인또는이상공저	5 (3.39)	2 (4.44)	1 (2.08)	2 (3.64)
합 계	148 (100.00)	45 (100.00)	48 (100.00)	55 (100.00)

(2) 게재논문의 연도별 공저자 소속 연구기관의 수 조사

1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63편(42.57%)으로 가장 많았고, 2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47편(31.76%), 3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27편(18.24%)순이었다. 2005년도는 2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42.22%로 가장 많았고, 1개기관수행연구 논문 26.67%, 3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20.00%순이었다. 2006년도는 1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50.00%로 가장 많았고, 2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25.00%, 3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18.75%순이었다. 2007년도는 1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49.09%로 가장 많았고, 2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29.09%, 3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16.36%순이었다(표 7).

표 *7.* 연도별 게재논문의 공저자 소속 연구기관의 수 조사

단위 : N, %

연도	계	수행연구기관의 수				
		1	2	3	4	5또는이상
2005	45	12	19	9	5	·
	(100.00)	(26.67)	(42.22)	(20.00)	(11.11)	(0.00)
2006	48	24	12	9	1	2
	(100.00)	(50.00)	(25.00)	(18.75)	(2.08)	(2.08)
2007	55	27	16	9	2	1
	(100.00)	(49.09)	(29.09)	(16.36)	(3.64)	(1.82)
합계	148	63	47	27	8	3
	(100.00)	(42.57)	(31.76)	(18.24)	(5.41)	(2.03)

(3) 게재논문의 공동협력연구유형 분석

공동협력연구유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122편(82.43%)으로 가장 많았다. 수행연구기관 수별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단독수행연구유형인 대학에서 63편(42.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개기관 공동협력연구논문이 47편(31.76%), 3개기관 공동협력연구논문이 27편(18.23%)순이었다. LG생활건강, 전주죽림맑은물식품은 산업체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공기관으로, 스마일재단은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었다(표 8).

표 *8.* 게재논문의 공동협력연구유형 분석

단위 : N, %

수행연구 기관수	공동협력연구유형	계	연도별 논문의 수		
			2005	2006	2007
1	대학*	63 (42.57)	12	24	27
2	대학-대학	41 (27.70)	14	12	15
	대학-보건소	3 (2.03)	3	·	·
	대학-산업체	3 (2.03)	2	·	1
3	대학-대학-대학	16 (10.81)	8	3	5
	대학-대학-보건소	9 (6.08)	1	6	2
	대학-대학-산업체	1 (0.67)	·	·	1
	대학-대학-공공기관	1 (0.67)	·	·	1
4	대학-대학-대학-대학	2 (1.35)	2	·	·
	대학-대학-대학-공공기관	3 (2.03)	2	1	·
	대학-대학-보건소-공공기관	2 (1.35)	1	·	1
	대학-대학-공공기관-재단법인	1 (0.67)	·	·	1
5-12	기타	3 (2.03)	·	2	1
	합 계	148 (100.00)	45	48	55

* 동일대학내 타 전공분야 포함

3.2. 참고문헌 인용실태 분석

3.2.1. 게재논문의 국내 국외 참고문헌 수 조사

분석 대상인 148편의 논문에서 조사된 참고문헌은 총 3,800개이다. 이중에서 국외문헌 인용율이 2005년도에는 19.02%, 2006년도에는 21.74%, 2007년도에는 15.60%로 평균 20%정도 많았다. 논문 한 편당 평균 참고문헌의 수는 25.68개이다. 이중 10.45개는 국내문헌이고, 15.23개는 국외문헌이다(표 9).

표 *9.* 게재논문의 연도별 국내 국외 참고문헌 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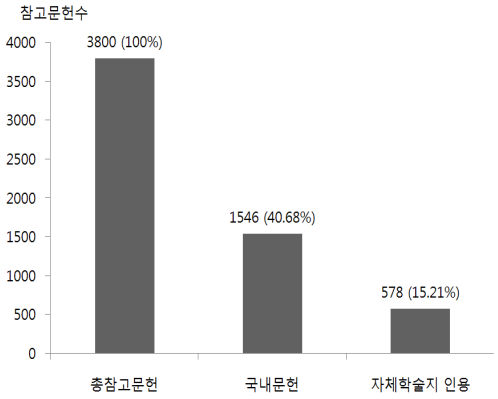
단위 : N, %

연도	논문 수	참고문헌 수					
		전체	평균†	국내	평균*	국외	평균**
2005	45	1173 (100.00)	26.07	475 (40.49)	10.56	698 (59.51)	15.51
2006	48	1224 (100.00)	25.50	479 (39.13)	9.98	745 (60.87)	15.52
2007	55	1403 (100.00)	25.51	592 (42.20)	10.76	811 (57.80)	14.75
합계	148	3,800 (100.00)	25.68	1,546 (40.68)	10.45	2,254 (59.32)	15.23

평균†=전체/논문수, 평균*=국내/논문수, 평균**=국외/논문수

3.2.2. 자체 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율

총148편의 논문 중 자체학술지 논문을 인용한 비율은 127편(85.81%)이었으며 이중 2006년도가 89.75%로 가장 많았고, 2007년도가 83.64%로 가장 적었다. 전체 참고문헌 3800개 중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비율은 579개(15.21%)이었다. 2006년도가 16.33%로 가장 많았고, 2007년도가 14.04%로 가장 적었다(그림 3, 표 10).



(그림 3)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인용률

표 *10.* 자체 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율

단위:N, %

연도	논문 수		참고문헌 수	
	전체	JKADH*(%)	전체	JKADH†(%)
2005	45	38 (84.44)	1173	182 (15.43)
2006	48	43 (89.75)	1224	200 (16.33)
2007	55	46 (83.64)	1403	197 (14.04)
합 계	148	127 (85.81)	3,800	579 (15.21)

JKADH*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논문을 한편이라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의 수
JKADH†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논문을 인용한 참고문헌의 수

3.2.3.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 조사

게재논문의 국내 참고문헌은 1546개(40.68%)이었다. 이중 자체학술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빈도는 578개로 국내문헌 중에서는 37.39%였으며, 총 참고문헌과 비교하면 15.21%이다. 자체학술지 인용은 2006년이 16.23%(199개)로 가장 많았고, 2005년 15.52%(182개), 2007년 14.04%(197개)순이다. 이는 자체학술지가 논문 한 편당 3.91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연도별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 조사

단위 : N, %

연도	총 논문수(A)	총 참고문헌 수(B)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C)	인용비율 (C/B*100)	평균 (C/A)
2005	45	1173	182	15.52	4.04
2006	48	1224	*199	16.23	4.15
2007	55	1403	197	14.04	3.58
합계	148	3,800	578	15.21	3.91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중 학술지명이 틀린 1개를 제외한 숫자임.

3.2.4.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조사

참고문헌의 경과년도는 인용논문의 발행년도에서 논문의 발행년도를 빼서 산출하였으며, 1978년 발행논문부터 2007년까지 29개년의 게재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다. 2005년도는 1년이 28개(15.38%), 2년이 27개(13.19%), 3년이 12개(6.59%), 4년이 각 12개(6.59%)순이었다. 2006년도는 1년이 29개(14.57%), 2년이 18개(9.05%), 3년과 4년이 각 19개(9.55%)순이었다. 2007년도는 1년이 30개(15.23%), 4년이 26개(13.20%), 2년이 25개(12.70%), 3년이 17개(8.63%)순이었다(표 12).

참고문헌의 반감기는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여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의 연도의 누적도수가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3개년에서 보여 지는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반감기는 2005년도 4년, 2006년도 5년, 2007년도 4년으로 평균 4.33년이 소요 되었다(표 13).

표 *12.*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경과년도조사

단위 : N, %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계			연도별 논문의 수					
				2005		2006		2007	
	인용빈도	백분율	누적도수	인용빈도	누적도수	인용빈도	누적도수	인용빈도	누적도수
0	20	(3.46)	(3.46)	8	(4.40)	8	(4.02)	4	(2.03)
1	87	(15.05)	(18.51)	28	(19.78)	29	(18.59)	30	(17.26)
2	70	(12.11)	(30.62)	27	(34.62)	18	(27.64)	25	(29.95)
3	60	(10.38)	(41.00)	24	(47.80)	19	(37.19)	17	(38.58)
4	**57	(9.86)	(50.87)	12	(54.40)	19	(46.73)	26	(51.78)
5	38	(6.57)	(57.44)	10	(59.89)	9	(51.26)	19	(61.42)
6	17	(2.94)	(60.38)	4	(62.09)	6	(54.27)	7	(64.97)
7	20	(3.46)	(63.84)	8	(66.48)	6	(57.29)	6	(68.02)
8	25	(4.33)	(68.17)	10	(71.98)	7	(60.80)	8	(72.80)
9	22	(3.81)	(71.97)	4	(74.18)	13	(67.34)	5	(74.62)
10	29	(5.02)	(76.99)	5	(76.92)	13	(73.87)	11	(80.20)
11	17	(2.94)	(79.93)	5	(79.67)	6	(76.88)	6	(83.25)
12	19	(3.29)	(83.22)	5	(82.42)	9	(81.41)	5	(85.79)
13	11	(1.90)	(85.12)	3	(84.07)	4	(83.42)	4	(87.82)
14	20	(3.46)	(88.58)	6	(87.36)	8	(87.44)	6	(90.86)
15	15	(2.60)	(91.18)	4	(89.56)	8	(91.46)	3	(92.39)
16	6	(1.04)	(92.21)	·		2	(92.46)	4	(94.42)
17	2	(0.35)	(92.56)	1	(90.11)	·		1	(94.92)
18	4	(0.69)	(93.25)	2	(91.21)	1	(92.96)	1	(95.43)
19	5	(0.87)	(94.12)	1	(91.76)	3	(94.47)	1	(95.94)
20	2	(0.35)	(94.46)	2	(92.86)	·		·	
21	4	(0.69)	(95.16)	2	(93.96)	2	(95.48)	·	
22	7	(1.21)	(96.37)	3	(95.60)	3	(96.98)	1	(96.45)
23	2	(0.35)	(96.71)	·		2	(97.99)	·	
24	4	(0.69)	(97.40)	3	(97.25)	·		1	(96.95)
25	1	(0.17)	(97.58)	·		1	(98.49)	·	
26	6	(1.04)	(98.62)	5	(100.00)	·		1	(97.46)
27	3	(0.52)	(99.13)			3	(100.00)	·	
28	4	(0.69)	(99.83)					4	(99.49)
29	1	(0.17)	(100.00)					1	(100.00)
합 계	578	(100.00)		182		199		197	

* 참고문헌의 경과년도는 인용논문의 발행년도에서 논문의 발행년도를 뺀 숫자임.

예) 2000년에 발행된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논문이 2005년도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2005-2000=5로 계산됨.

** 반감기를 표시함

표 *13.*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반감기 조사

단위 : N

연도	반 감 기*	
	해당년도	도달기간
2005	2001년도	4년
2006	2001년도	5년
2007	2003년도	4년
평균	·	4.33년

*반감기=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연도 백분율을 계산하여 누적도수가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3.2.5.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최다인용년도 조사

자체학술지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총 578개 중에서 논문이 게재된 후 1-5년이 312개(53.98%)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다음으로 6-10년이 113개(19.55%), 11-15년이 82개(14.19%)순으로 연도가 경과할수록 인용율이 감소하였다. 2005년도는 1-5년이 55.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이 17.03%이었다. 2006년도는 1-5년이 47.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이 22.62%이었다. 2007년도는 1-5년이 59.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이 18.79%이었다. 3개년 모두 1-5년, 6-10년, 11-15년 순으로 인용되었다(표 14).

표 *14.*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최다인용년도 조사

단위 : N, %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계	연도별 논문의 수		
		2005	2006	2007
0	20 (3.46)	8 (4.40)	8 (4.02)	4 (2.03)
1 - 5	312 (53.98)	101 (55.50)	94 (47.24)	117 (59.40)
6 - 10	113 (19.55)	31 (17.03)	45 (22.62)	37 (18.79)
11 - 15	82 (14.19)	23 (12.64)	35 (17.59)	24 (12.18)
16 - 20	19 (3.29)	6 (3.30)	6 (3.02)	7 (3.55)
21 - 25	18 (3.11)	8 (4.40)	8 (4.03)	2 (1.02)
26년이상	14 (2.42)	5 (2.75)	3 (1.51)	6 (3.05)
합 계	578 (100.00)	182 (100.00)	*199 (100.00)	197 (100.00)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중 학술지명이 틀린1개를 제외한 숫자임.

3.2.6. 게재논문의 연도별 자체학술지 즉시인용율

즉시인용율은 인용하는 연구자들이 인용되는 학술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나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논문 수 증가와는 반대로 즉시인용율은 2005년에는 8개(17.78%)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 8개(16.67%), 2007년4개(7.27%)으로 낮아져서 연평균 13.51%를 나타났다(표 15).

표 *15.* 연도별 게재논문의 자체학술지 즉시인용율

단위 : N, %

연도	논문 수	인용문헌 수	즉시인용율*
2005	45	8	17.78
2006	48	8	16.67
2007	55	4	7.27
합 계	148	20	13.51

*즉시인용율=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당해년의 다른 논문에 인용된 총 인용 횟수의 합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당해년에 발표된 총 논문 수로 나눈 값

3.3.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은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등 6개 항목을 검색하여 오류를 조사하였다.

3.3.1.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논문 수

자체학술지를 한 개라도 인용한 논문이 127편으로 이중에서 인용형식오류를 보인 논문이 72편(56.69%)이였다. 오류율이 2005년에서 78.95%로 가장 높았으며, 2007년에는 45.65%로 2005년에 비해 33.30% 낮아졌다. 해가 거듭될수록 오류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였다(표 16).

표 *16.*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논문 수

단위 : N, %

연도	논문 수			
	전체	JKADH*	인용형식오류	오류율
		(A) (%)	(B) (%)	(B/A*100)
2005	45 (30.41)	38 (29.92)	30 (41.67)	78.95
2006	48 (32.43)	43 (33.86)	21 (29.17)	48.84
2007	55 (37.16)	46 (36.22)	21 (29.17)	45.65
합 계	148 (100.00)	127 (100.00)	72 (100.00)	56.69

3.3.2.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총 579개 중에서 한 곳이라도 틀린 곳이 있는 참고문헌은 131개로 전체오류율은 22.63%이었다. 2006년에서 10.50%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2007년 19.80%, 2005년에서 39.01%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표 17).

표 *17.*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

단위 : N, %

연도	참고문헌 수			
	전체	JKADH†	인용형식오류	오류율
		(A) (%)	(B) (%)	(B/A*100)
2005	1173 (30.87)	182 (31.43)	71 (54.20)	39.01
2006	1224 (32.21)	200 (34.55)	21 (16.03)	10.50
2007	1403 (36.92)	197 (34.02)	39 (29.77)	19.80
합계	2,397 (100.00)	579 (100.00)	131 (100.00)	22.63

3.3.3.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인용형식 오류는 참고문헌 131개 중 총 157건의 오류가 나타났다. 6개 항목의 오류는 한 논문에서 여러 개가 발견되었을 때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이 중에서 페이지 오류가 103건(6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목 20건(12.82%), 권(호)가 18건(11.54%) 순이었다. 2005년도는 페이지가 66.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목이 15.48%였다. 2006년은 페이지가 58.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권(호)가 24.14%였다 2007년은 페이지가 68.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목이 11.36%이었다(표 18).

표 *18.*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단위 : N(%)

연도	인용형식오류 논문 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오류사항						
		계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2005	71	84 (53.50)	4 (4.76)	13 (15.48)	1 (1.19)	3 (3.57)	7 (8.33)	56 (66.66)
2006	21	29 (18.47)	0 (0.00)	2 (6.90)	1 (3.45)	2 (6.90)	7 (24.14)	17 (58.62)
2007	39	44 (28.03)	2 (4.55)	5 (11.36)	0 (0.00)	3 (6.82)	4 (9.09)	30 (68.18)
합계	131	157 (100.00)	6 (3.85)	20 (12.82)	2 (1.28)	8 (4.49)	18 (11.54)	103 (66.02)

Ⅳ. 총괄 및 고안

본 연구에서는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4권씩 정기 발행되어 총12권에 게재된 논문 148편, 연도별로는 30.41%, 32.43%, 37.16%였다.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 3,800개 중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 논문을 인용한 579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표 1).

이 연구는 윤[5]의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인용분석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중에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적용된 항목을 정리하였다. 인용분석 지표체계도 중 생산성(학술지 생산성), 영향력(학술지 영향력), 이전속도(즉시인용율, 인용절정기, 반감기), 논문의 특성(논문 한 편당 저자 수, 논문 한 편당 인용수), 인용의 특성(학술지 자기인용률)을 산출하기 위한 지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표 2).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논문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대한구강보건학회지를 참고문헌으로 얼마나 인용하였으며, 그 인용형식은 정확한가를 분석해 보고(표 3),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인용실태를 분석하여 학회지의 활용과 인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1.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게재논문의 분야별 논문 수 조사에서 예방치과학·공중구강보건학분야의 치아우식증관련연구 논문이 각 36편(24.32%), 33편(22.30%)으로 약 2%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공중구강보건학분야의 치주질환관련연구 1.35%, 예방치과학분야의 치주질환관련연구 6.76%로 약 5.41%정도 많았다. 치주질환관련연구에서 예방치과학분야가 공중구강보건학분야에서 보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표 4).

연도별 게재 논문의 저자 수와 색인 수 조사에서 논문 한 편당 저자 수는 4.51명이었다. 민 등[4]의 연구에서 저자 수는 4.83명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색인 수는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의하면 6개 이내로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바, 논문 한 편당 평균 색인 수는 4.24개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넓게 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5).

공저자 논문 수 조사 결과 5인공저 논문이 2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인공저 논문이 21.62%순이었고, 8인이상인 경우가 3.39%로 가장 적었다. 이는 단독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이 함께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6).

공저자가 소속한 기관의 수는 1개기관수행연구 논문이 42.57%로 가장 많았고, 2개기관 31.76%, 3개기관 18.24%순이었다. 이는 민 등[4)]의 연구에서 저자가 소속한 기관수는 55.5%, 28.0%, 11.2%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표 7).

게재 논문의 공동협력연구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82.43%이었다. 수행연구기관 수별로는 단독수행연구유형인 대학에서 42.57%로 가장 많았고, 2개기관 공동협력연구인 대학-대학간 논문이 27.70%순이었다. 민 등[4)]의 연구에서 단독연구 논문이 55.5%, 2개기관 수행연구인 대학-대학공동연구 논문이 19.9%, 대학-연구소간 공동연구 논문이 14.5%, 대학-산업체간 공동연구 논문이 5.8%로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 이렇듯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학술적 연구가 더욱 더 국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8).

2. 참고문헌 인용실태 분석

조사년도 참고문헌 중에서 국내문헌이 40.68%, 국외문헌이 59.32%로 약 20%정도 국외문헌 인용율이 높았다. 조 등[11)]은 국내논문이 7.7%, 외국논문이 78.4%로 국내보다 외국의 논문이 약 10배정도 많았다. 이 등[14)]은 국내문헌 인용율이 평균 49.9%였다고 보고하였다(표 9).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수와 참고문헌 인용률에서 논문 중 자체학술지를

한 개라도 인용한 논문의 비율은 85.81%이었고,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참고문헌의 비율은 15.21%였다. 조사 연도별로 상호 비슷한 인용율을 보였다. 김 등[8]은 자체학술지를 1개 이상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논문이 약 74%, 전체 참고문헌에 대한 인용비율은 8%정도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와는 세부전공이 다른 관계로 단지 참조할 뿐이다(표 10).

게재 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빈도는 조사년도의 참고문헌 3,800개 중 국내 참고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8%이었다. 국내 참고문헌 중 자체학술지 인용은 학술지명이 틀린 1건을 제외한 37.39%로써, 논문 한 편당 3.91개가 인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등[2]은 논문 한 편당 1.18개가 인용된 것으로 이는 분과학회지 전체를 조사 분석한 것으로 사료된다(표 11).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경과년도 조사는 1978년 논문부터 2007년의 논문까지 인용되고 있지만 5년 전까지의 게재논문의 참고문헌 인용률이 50.87%이었다. 직전년도의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2005년도는 2004년의 논문 182개 중 28개로 19.78%이었고, 2006년도에는 2005년의 논문 199개 중 29개로 18.59%, 2007년도에는 2006년의 논문 197개 중 30개로 17.26%순으로 인용되었다. 경과년도가 1년이 87개(1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이 70개(12.11%), 3년이 60개(10.38%), 4년이 57개(9.86%), 5년이 38개(6.57%)순으로 인용이 점점 감소되었다. 이[17]는 논문에 따라서는 발표 후 얼마까지는 인용되지만 그 후에는 잘 인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논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어 참고문헌의 경과년도 분석도 논문의 가치를 따져보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표 12).

연도별 게재 논문의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반감기는 발행년도로부터 4년 내지 5년으로 평균 4.33년을 지나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3).

자체학술지 최다인용년도 조사 결과, 1-5년이 53.98%, 6-10년이 19.55%순이었다. 박[9]은 논문이 발간된 다음 해부터 인용되기 시작하여 2년에서 22.2%, 3년에서 15.7%, 4년에서13.0%, 1년에서 13.7%, 5년에서 11.1%순이다. 이와 같이 2년 내지 5년 정도에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다

음에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발표 직전년도부터 5년까지는 활발한 인용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연도별 자체학술지 즉시인용율은 평균 13.51%였다. 즉시인용율[15]은 인용하는 연구자들이 인용되는 학술지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표 15).

3.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 조사

참고문헌의 정확도 조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저자명, 논문제목,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등을 정확하게 적었는가를 알아보는 인용형식의 오류 즉 출처표기오류(citation error)와 참고한 내용이 원문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인용내용의 오류(quotation error)이다[13].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인용형식의 오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항목별 오류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는 전체 148편중에서 자체학술지를 한 개라도 포함한 논문은 127편으로 85.81%이었다. 127편중에서 오류를 보인 논문이 72편으로 56.69%이었다. 김 등[8]은 대한마취과학회회지(1996-1998년)에서 보인 논문의 오류율은 44%로 보고한 자료와 비교할 경우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대한구강보건학회지가(2005-2007년) 12.59%높았다(표 16).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은 총 579개중 오류 논문이 131개로 오류율은 22.63%이었다. 변[18]은 가정의학회지에서 나타난 출처표기 오류율은 71.4%, 김 등[8]은 대한마취과학회지에서 29%에서 오류율을 보이나 이는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학회지마다 오류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였고, 향후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다른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표 17).

연도별 자체학술지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사항 조사결과, 오류논문 131개에서 총 157건의 오류가 분석되었다. 페이지 오류가 103건 66.02%로 가장

많았고, 제목이 20건으로 12.82%, 권(호)가 18건으로 11.54%, 발행년도가 8건으로 4.49%, 저자명이 6건으로 3.85%, 학술지명이 2건으로 1.28%순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검색기준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original article과의 대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참고문헌 표기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르며, 예외의 경우에는 "생화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모 등[6)]은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를 대상으로 참고문헌의 정확도 조사에서 오류항목이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페이지, 권호, 발행년도 순으로 보고되었으나, 조 등[11)], Lee와 Lee[12)], George 등[13)], Siebers[16)]의 논문에서는 틀린 항목의 순위가 저자명, 제목, 페이지,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도 순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국내 참고문헌 중에서도 자체 학술지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외국문헌이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오류가 적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페이지 오류를 범한 대부분의 저자들이 시작과 끝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서부터 영문초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작 쪽보다는 끝 쪽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제목의 일부단어가 빠진 경우, 단어를 유사하게 기록한 경우의 예로는 '조사연구', '비교연구'에서 조사와 비교를 빼고 '연구'라고만 기록하였거나, '실태'를 상태로 '의료'를 치료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불소화 사업 또는 불화사업으로 기록한 경우 등이다. 학술지명을 틀리게 기록한 경우의 예로는 한국학교보건학회지를 대한구강보건학회지로 써 놓은 경우, 대한구강보건학회지를 대한구강학회지로 써놓은 경우였다. 권(호)의 경우는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기록한 경우였다(표 18). 이러한 참고문헌의 인용형식 오류율은 전체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높여 논문 및 저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학술지의 질을 높이며 학문발전을 도모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다고 하였다[6,8,11,12,18)]. 이처럼 참고문헌의 출처표기의 정확도는 저자들의 책임이 크므로 투고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편집과 심사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2004년도 이후 게재논문과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인용의 실태와 인용형식의 오류가 분석되었으므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좀 더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체계적인 차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인용내용에 대한 오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게재 논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술지마다 나름대로 양적 질적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가 구강보건학분야의 비중 있는 학술지로써 더욱 발전하고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체학술지 참고문헌 인용실태와 인용형식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보다 나은 학술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3개년에 발표된 총 148편의 논문과 각 논문들이 인용한 참고문헌 3,800개 중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5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체학술지 인용은 전체 참고문헌 중 15.21%이며, 논문 1편당 평균 3.91건이다.
2. 즉시인용률은 평균 13.51%, 최다인용은 발행된 후 1-5년 사이의 논문이 53.98%로 가장 많았으며, 반감기는 발표년도로부터 4년 내지 5년이었다.
3. 자체학술지를 인용한 논문의 오류율은 56.69%,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의 오류율은 22.63%이다. 오류항목 중 페이지가 103건(66.02%)으로 가장 많았고, 제목 20건(12.82%), 권(호)가 18건(11.54%) 순이다.

참고문헌

1. 한상완, 박홍석. 국내 학술지 평가모형에 관한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9;33(2):89-118.
2. 조은성, 김세나. '소비자학연구'에 발표된 논문들의 인용 분석. 한국소비자학회지 2007;18(1):71-95.
3. 남영준, 조현양, 배순자. 참고문헌의 서지기술 표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5;39(4):261-279.
4. 민태선, 김성용, 박숙미, 한인규. 생명과학 국내학술지 게재논문의 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질적 수준제고 방안 연구.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2006;48(4):623-636.
5. 윤석경.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인용분석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96;7:155-177.
6. 모형진, 김영태, 김재욱.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99;42(5):1059-1064.
7. 김갑선.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와 참고문헌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2;36(4):21-47.
8. 김용철, 조상윤, 염종훈, 신우종, 전정헌, 이동호. 대한마취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시 인용빈도 및 인용의 정확성. 대한마취과학회지 1999;37:877-884.
9. 박계헌. 지난 10년간 암석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피인용 통계. 암석학회지 2002;11(1):54-61.
10. 성화경, 이옥희, 유혜경.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994;18(5):692-703.
11. 조길호, 이미경, 한만용, 김영래, 김서정, 이규형. 소아과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확도와 인용행태 분석. 대한소아과학회지 2002;45

(11):1325-1331.

12. Lee SY, Lee JS. A survey of reference accuracy in two Asian dermatologic journals(the journal of dermatology and the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Int J Dermatol 1999;38:357-360.
13. George PM, Robbins K. Reference accuracy in the dermatologic literature. J Am Acad Dermatol 1994;31:61-64.
14. 이철호, 윤성원, 최상의. 식품학분야를 모델로 한 국내학술지의 정량적 평가지표 도출 연구. 식품과학과 산업 2007;6:59-68.
15. 최광남. 국내학술지 영향력 지표 분석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KSCI)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4;38(4):271-289.
16. Siebers R. The accuracy of references of three allergy journals. J Allergy Clin Immunol 2000;105:837-838.
17. 이춘실. 한국 의학학술지의 SCI 영향력지표 계량측정 연구: 1991년 - 1999년. 정보관리학회지 2001;18(1):85-104.
18. 변재준. 가정의학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가정의학회지 1996;17(12):1385-1391.
19. 이가종, 윤석경. 학술지 인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996;30(2):97-112.
20. 조성호.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2003;15(4):811-832.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보건학과	학 번	2007860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미경 한문: 金美京 영문: Kim, Mi-Kyong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0 상계주공 607-1502				
연락처	E-MAIL: jangwoneng@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게재 논문의 참고문헌 조사연구(2005~2007년을 중심으로) 영문 : Analysis of references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2009년 2월 25일

저작자: 김 미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